

충격의 8회 8실점...무너진 KIA 마운드 올라가 끌어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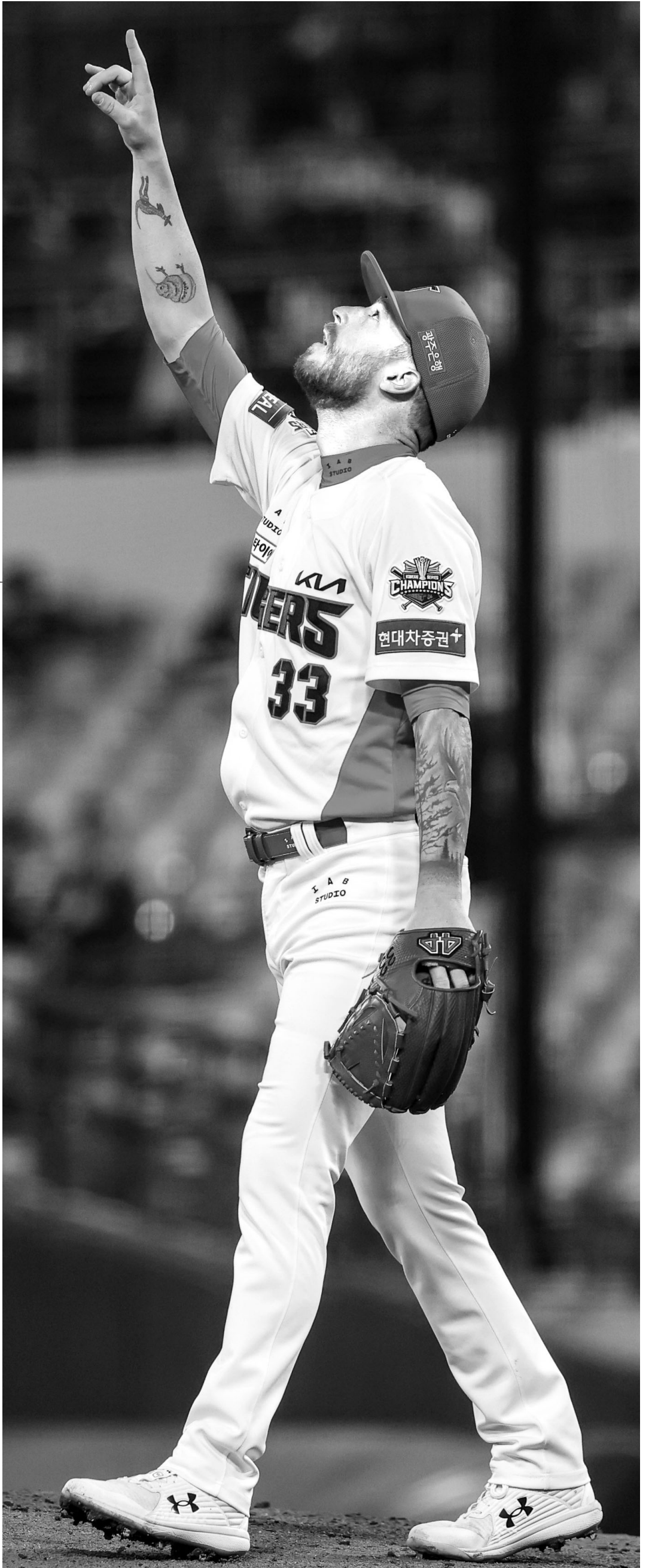


키움 상대 10-3 점수 못 지키고 10-11로 역전패
조상우 영입하며 '막강 1강' 불펜서 최하위로 추락
오늘 올라 출격...SSG 상대 '고참 참사' 지우기 나서

‘8회 8실점’ 충격의 패배를 기록한 KIA 타이거즈가 아담 올러로 마운드 정상화에 나선다.
어린이날 시리즈로 월요일 경기를 치르는 등 9연전 일정을 달렸던 KBO가 잠시 숨을 골랐다. 8일 이동일을 보낸 KIA는 고척에서 문학으로 장소를 옮겨 SSG 랜더스를 상대로 주말 3연전을 치른다.
KIA는 지난 7일 키움 히어로즈를 상대로 시즌 첫 스윙에 도전했다. 8회말이 시작하기 전까지는 KIA의 승리가 눈앞에 있는 것 같았다.
KIA는 1-1로 맞선 6회 대타 최형우의 2타점 3루타 등을 앞세워 4점을 뽑아냈다. 8회에는 상대 불펜의 제구 난조를 묶어 5득점의 박이닝을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인 역전패였다.
불펜 붕괴로 10-3의 승부가 10-11로 끝이 났다.
선발로 나선 황동하가 5이닝 2피안타 1볼넷 4탈삼진 1실점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고 물러났지만, 불펜이 제 몫을 하지 못했다.

불펜이 가동된 6회말 이준영이 송성문에게 솔로포를 맞았고, 전상현은 카디네스에게 좌중간 2루타를 허용한 뒤 임병욱의 적시타로 1실점을 했다.
전상현이 7회는 삼자범퇴로 처리했지만 최지민이 등장한 8회 악몽의 이닝이 펼쳐졌다.
앞선 공격에서 5점을 뽑으면서 10-3, 7점의 리드를 안고 최지민이 출격했지만 송성문과 최주환을 연속 볼넷으로 내보낸 뒤 강판됐다. 김건국이 진화에 나섰지만 결과가 좋지 못했다. 김건국이 푸이그에게 좌전안타를 맞으면서 무사 만루가 됐다.
카디네스의 3루 땅볼 때 홈에 들어오던 주자를 잡아내면서 원아웃은 만들었지만, 임병욱에게 중전적시타를 허용하면서 10-4가 됐다.
그리고 김태진에게 단진 초구 직구가 우중간 담장 밖에 떨어지면서 순식간에 10-8까지 추격을 허용했다.
결국 필승조 조상우와 마무리 정해영까지 8회 투입됐지만 두 선수 모두 볼넷을 기록하는 등 스스로 무너졌고, 스코어는 10-11로 뒤집혔다.

9회초 박정우가 볼넷을 골라내면서 마지막 볼씨는 살렸지만, 박찬호의 병살타로 KIA는 충격적인 역전패를 장식했다.
지난 시즌 KIA는 막강 불펜으로 승리를 지키면서 우승까지 내달렸다. 하지만 올 시즌 KIA 불펜 평균자책점은 6.22, 최하위다. 불펜진 평균자책점 1위는 LG로 2.93.
선발진 평균자책점은 그나마 낮다. 평균자책점 1위 제임스 네일(1.09)이 이끄는 선발진의 평균자책점은 3.69로 4위다.
롤러코스터 타선으로 고전했던 KIA는 키움전에서 모처럼 활발한 타격을 선보였지만 불펜 대참사로 상승세가 꺾였다.
선발진이 최대한 많은 이닝을 책임지면서 불펜의 재정비 시간을 벌어줘야 한다.
올라가 마운드 정상화 전면에 선다. 올리는 9일 선발로 출격해 드류 앤더슨과 마운드 맞대결을 벌인다.
4월 13일 SSG와의 경기에서 7이닝 2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뒀던 올리는 이후 3경기에서 패 없이 2승을 수확하고 있다. 3경기에서 모두 8개의 탈삼진도 뽑아냈다.
올라가 위기의 마운드를 책임지면서 '고척 대참사'의 충격을 지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아담 올러가 9일 SSG전 선발로 나와 마운드 위기 수습에 나선다. KIA는 지난 7일 키움전에서 8회 8실점으로 10-11 역전패를 당했다. 지난 3월 25일 키움과의 홈경기에서 등판을 마무리한 뒤 세리머니를 하는 올러. 이 경기에서 올러는 KBO 첫승을 기록했다. <KIA 타이거즈>

‘다저스 연착륙’ 김혜성, 타율 0.417 신바람

타격 자세 변화 완성 등 인상적

마이너리그행을 받아들이고, 팀이 요구한 ‘타격 자세 변화’도 수용한 김혜성(26·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빅리그에 연착륙했다.
김혜성은 8일 열린 2025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마이애미 말린스와 방문 경기에 8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2안타 1타점을 올렸다.
선발 출전한 3경기에서 모두 안타를 생산한 김혜성은 타율 0.417(12타수 5안타), 3득점, 2타점, 2도루를 기록 중이다.
KBO리그에서 8시즌을 뛴 김혜성은 포스팅(비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빅리그 진출을 추진해 올해 1월 다저스와 3+2년 최대 2200만달러, 보장계약 3년 총액 1250만달러에 계약했다.
다저스는 김혜성에게 스프링캠프 기간에 타격 자세 수정을 요구했다.
적응이 필요했던 김혜성은 MLB 시범경기에서 타율 0.207(29타수 6안타), 1홈런, 3타점, OPS(장타율+출루율) 0.613에 그쳤고, 정규리그 개막전인 도쿄 시리즈가 열리기 전에 마이너리그로 내려갔다.
김혜성은 좌절하지 않고 트리플A에서 타율 0.252(115타수 29안타), 5홈런, 19타점, 13도루, OPS 0.798을 올렸고, 지난 4월 빅리그 현역 로스터에 등록됐다.
4일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경기에서 처음으로 빅리그 현역 로스터에 등록돼 대수비로 데뷔전을 치른 김혜성은 5일 애틀랜타전에는 대주자로 출전해 도루에 성공했다.
김혜성은 6일 마이애미와 경기에서 9번 타자 2



김혜성이 8일 열린 2025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마이애미 말린스와 방문 경기에 8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5회 안타를 기록하고 있다. /연합뉴스

루수로 처음 선발 출전해 4타수 2안타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안타, 타점, 득점 모두 자신의 빅리그 1호 기록이었다.
7일에도 1안타(4타수)를 쳤고, 8일에는 다시 멀티 히트를 작렬했다.
주 포지션이 2루수인 김혜성은 이날 중견수로 선발 출전했고, 7회말에는 2루수로 이동했다.
팀 수비 포메이션에 관해서는 팀 동료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
이날도 미겔 로하스가 더그아웃에서 김혜성에게

수비에 관해 조언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김혜성은 “빅리그가 처음이라, 내가 모르는 게 많다. 팀 동료들이 먼저 다가와서 친절하게 알려준다”고 고마워했다.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도 김혜성의 활약을 반겼다. 로버츠 감독은 “정말 인상적이다. 김혜성은 독특한 타격을 하고, 뛰어난 콘택트 능력을 보였다. 그동안 우리 팀에 없던 스피드, 역동성을 보여줬다”며 “내일도 김혜성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김혜성의 4경기 연속 선발 출장을 예고했다.
/연합뉴스

NC, 울산으로 홈구장 옮긴다...16일부터 문수야구장 사용

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울산 문수야구장을 올해 대체 홈구장으로 쓰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NC는 “이번 결정은 경남 창원NC파크의 재개장이 무기한 연기된 상황에서 선수단의 안정적인 경기력 유지와 KBO리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뤄

졌다”고 설명했다.
NC는 16일부터 18일까지 울산 문수야구장에서 키움 히어로즈와 경기를 시작으로 대체 홈 경기장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진만 NC 구단 대표는 “연휴 기간 KBO 지원

을 받아 여러 대체 구장을 신속히 검토했고, 울산 시와 협의를 통해 문수야구장을 최종적으로 선택했다”며 “특히 문수 야구장의 전체 유지, 관리, 보수를 책임져 주기로 한 울산시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공모전시

사모곡 비우면서 채우는... : 류현자 개인전

일시 : 2025-5-2(금) ~ 2025-6-1(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광주시립창극단 특별기획공연
'종류 in 광주'

일시 / 장소 :

- 04월 19일(토) 13:30, 15:00 / ACC 상상마당
- 06월 07일(토) 13:30, 15:00 / 푸른길공원
- 06월 14일(토) 13:30, 15:00 / 양산호수공원

문의 : 062-526-0363

*우천 시 야외공연은 취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류현자 개인전
New Wave in Asia Exhibition